

梅山 洪直弼의 儒道 존송과 警世의 시문 창작에 관한 고찰*

신 영 주**

<目次>

- | | |
|--------------------------------|--------------------|
| I. 머리말 | III. 辭理俱臻의 문학과 警世의 |
| II. 處士의 삶의 지향과 崇儒重道
의 학문 활동 | 시문 창작
IV. 맺음말 |

<국문 초록>

본고는 매산의 삶의 행적과 그의 문학에 대해 살펴본 것이다. 매산은 전적으로 문학에 전념했던 문인은 아니지만 문학적 의미를 갖는 많은 분량의 작품을 남겨두었다. 학자로서 학문 탐구에 매진하고 후진 양성에 심혈을 다하면서도 문학의 사회적 역할과 가치를 간과하지 않았던 것이다. 특히 매산은 유도가 미약해지고 풍속이 쇠퇴하는 현실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었는데, 스스로 이를 바로잡기를 바랐다. 매산은 몇 가지 방향에서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다. 우선은 학술적 대응으로서 자신이 혼란한 세대에 뒤섞여 출사하는 것을 거부하고 물러나 위기의 학문에 종사하기를 원하였다. 또한 매산은 문학을 통해서도 현실을 개선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비지와 전장을 통해 민간에 묻혀 있던 윤리와 절의에 관한 미담들을 소개하여 풍속을 바로잡

* 이 논문은 2013년도 성신여자대학교 학술연구조성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성신여자대학교 부교수 / syj@sungshin.ac.kr

기를 기대하였던 것이다. 아울러 시를 통해 가난과 추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고통 받는 백성들을 대변하고 위정자를 경계하고자 하였다. 문학이라는 도구로 사회 변화를 도모하고자 한 매산의 시도는 19세기 문학사의 한 경향을 보여주는 흥미로운 사례로 평가될 수 있을 듯하다.

【주제어】 매산 홍직필, 매산집, 산림처사, 위정척사, 경세문학

I. 머리말

梅山 洪直弼은 출사를 마다하고 학문 연구에 진력하여 近齋 朴胤源 문하에서 그 학맥을 계승하고 이를 후대에 전한 노론 낙론의 핵심 사상가이자 문인 교육자로서, 1776년 6월 13일 신시에 한성의 鑄字洞 집에서 태어나 1852년 7월 17일 유시에 鷺湖의 蘆漪精舍에서 77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다.

매산은 “율곡을 동방의 孔子처럼 여기고 우암을 晦翁의 보좌처럼 여긴다. 문리가 밀착한 농암을 추종하고 금회가 쇠락한 삼연을 추종하며 근세 인물로 漢湖와 近齋와 老洲를 독실하게 신뢰한다.”¹⁾라고 하여 스스로 노론 낙론에 연원을 두고 있음을 밝혔다. 김평묵도 매산이 농암과 삼연의 餘韻을 익히고 미호와 근재의 바른 연원을 이었음을 영전에 올린 제문에서 분명하게 짚어서 말하였다.²⁾ 매산은 율곡과 우암을 거쳐 농암과 삼연을 지나고 미호와 근재로 이어지는 노론 낙론의 연원 위에 자리하고 있다.

매산이 세상을 떠난 이튿날 실록에는 “홍직필은 蔭同敦寧 洪履簡의 아들로서 용맹하게 正道를 지키고 엄중하게 邪道를 물리쳤다. 곤궁하게 시골 선비로 있으면서도 근심하지 않았고 영달하여 조정의 賓師가 되어

1) 金平默, 『重菴集』 卷52, 「梅山洪先生遺事[辛酉]」.

2) 金平默, 『重菴集』 卷45, 「祭梅山洪先生[直弼]文」.

서도 교만하지 않았다. 문학은 심오하고 의리는 정미하여 우뚝이 한 시대의 儒宗이 되었다.”³⁾라고 그의 줄기가 기록되었다. 정도를 지키고 사도를 물리친 것, 곤궁해도 근심하지 않고 영달해도 교만하지 않은 것, 문학과 의리를 겸비한 儒宗이 된 것을 강조하였다. 매산은 실제로 심성론과 예학 탐구에 온 힘을 기울였다. 여기에는 사도를 물리치고 정도를 회복하려는 그 나름의 바람이 있었다.

19세기 전반 조선 사회는 정치적으로나 사상적으로 몹시 불안하였다. 순조 즉위 이후 세도 정치가 심화되어 부패가 극에 달하고 매관매직이 만연하여 심각한 사회문제를 야기했다. 게다가 삼정까지 문란해져 도탄에 빠진 백성들이 유리걸식하게 되었던 것이 당시의 처한 상황이었다.

또한 華夷觀에 근거한 청에 대한 반감이 여전히 가시지 않은 터에 서구에서 시작된 이방의 문명이 중국을 거쳐 시시각각 유입 소개되는 일이 계속되었다. 이에 외래의 문명과 그에 관한 이야기들이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고 증폭되면서 사회 구성원들의 이목이 휩쓸리고 있었다. 하지만 선배 지식인들이 축적하여 전해준 지식 체계로는 재단할 수 없는 것들이어서 처지에 맞게 수용하고 활용할 만한 방법도 딱히 있지는 않았다. 도리어 이로 인해 지식인 사회가 상당히 복잡한 양상으로 갈라지면서 혼란한 국면에 빠져들고 있었다.

지식인들은 자신의 처지에 따라 현실에 대한 진단과 그 대응이 여러 가지로 갈렸는데, 매산은 심성론과 예학을 현재에 맞게 다시 정비하여 유도를 회복하는 방법을 택하였다. 아울러 사회 각 층위에서 발생한 윤리와 절의에 관한 미담을 기록하여 후대의 본보기로 삼아 이로써 혼란해진 기강과 질서를 바로잡고 현실을 개선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매산이 19세기 전반기 도학과 예학을 주도한 대표 학자였으므로 연구자들의 관심도 이 부분에 집중되었다.⁴⁾ 하지만 매산이 단지 사상가로서

3) 『哲宗實錄』, 「3年(1852) 7月 18日」 기사.

4) 최영성, 「敬石 任憲瓚의 학문과 사상」, 『한국민족문화』 22호, 부산대 한국민족문화연구소, 2003.; 노대환, 「세도정치기 산림의 현실인식과 대응론」, 『한

입지를 갖춘 것만은 아니다. 100여 권에 이르는 家藏草稿가 남아 있었고,⁵⁾ 시 작품만 헤아려도 3,555수에 달하였으니,⁶⁾ 그의 문학적 성과도 예사로운 것은 아니다. 그 사이 노론 산림 도학자로서 매산 시를 분석한 연구, 매산의 寧越 유람에 관한 문학 연구, 매산 창작 傳記 資料의 價値에 대한 연구가 보고되었지만,⁷⁾ 그의 문학에 대한 연구가 아직은 충분하지 못한 실정이다. 조선후기 학술 문예사에서 차지하고 있는 매산의 위치와 비중에 걸맞은 정치한 분석과 종합적 성찰이 여전히 필요하다.

매산의 문학적 성취를 쉽게 말하기는 어렵지만 그의 시문 저작들의 성격에 대한 검토가 우선 필요하다. 아울러 매산의 처세 및 문인으로서의 주요 행적에 관한 검토도 함께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매산의 행적과 그가 남긴 시문을 검토하여 매산 문학의 성격을 알아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매산의 일생과 관련하여 그의 학문 내력과 행적 등에 대하여 추적하고 다시 그의 辭理俱臻과 警世의 문학론에 대해 검토할 것이다.

II. 處士의 삶의 지향과 崇儒重道의 학문 활동

매산은 그의 행장에 따르면, 체구가 장대하고 넓은 이마와 긴 얼굴에 성근 눈썹과 아름다운 수염이 있고 큰 쇠북종이 울리는 것 같은 목소리를 소유하였다고 한다.⁸⁾ 박윤원이 이름을 ‘直弼’로 바꾸고 자를 ‘伯應’으

국문화』 42호, 서울대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2008.; 정길연, 「梅山 洪直弼의 禮說研究」, 경성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8.

5) 任憲晦, 『鼓山集』 卷16, 「梅山洪先生行狀」.

6) 任憲晦, 『鼓山集·續集』 卷1下, 「三一編跋壬戌」.

7) 정순희, 「조선후기 도학자 시에 나타난 일상성의 몇 국면」, 『한국문학이론과비평』 24호, 한국문학이론과 비평학회, 2004.; 이대형, 「洪直弼의 寧越 유람과 節義의 형상화」, 『한국문화연구』 8호, 이화여대 한국문화연구원, 2005.; 이은주, 「筆寫本 『梅山集』의 傳記 資料的 價値에 대한 研究」, 성균관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5.

로 바꾸어주기 전까지 그의 이름은 ‘兢弼’이었고 자는 ‘伯臨’이었다. 사후에는 ‘도덕이 있고 건문이 넓음을 文이라 한다.’와 ‘밤낮으로 경계함을 敬이라 한다.’는 시법에 따른 ‘文敬’이라는 시호를 받게 되었다.

먼저 매산의 행적에 대해 간략하게 소개한다. 행장에 따르면 매산은 3세가 되던 무술년(1778)에 비로소 부친 洪履簡(1753-1827)에게 글자를 배워 스스로 깨우치고 이해하였다. 막내 외숙부 朴聲漢에게 4세에 千字文을 배우고 5세에 『十九史略』을 배웠으며 7, 8세 무렵에는 글을 엮을 수 있었다. 8세가 되던 계묘년(1783)에 외가에서 비로소 본가로 돌아와 이때부터 일과를 정하여 공부하면서 잠시도 손에서 책을 놓지 않았다고 한다.

9세 때에는 할아버지 참판공 洪善養에게, 10세 때에는 부친에게 史書를 수학하였다. 11세가 되던 1786년부터는 가정에서 벗어나 金履重을 스승으로 모시고 『서경』을 수학하였다. 얼마 후부터는 외척이자 尹鳳九의 고족제자인 立菴 朴俊欽에게 수학하였다. 후일 매산은 “내가 처음 학문을 시작할 때에 두 분에 의해 계발된 것이 많다.”고 당시를 추억하였다. 두 분이란 김이중과 박준흠을 이른다. 박준흠은 洛論으로 분류되는 陶菴 李緯(1680-1746)와 黎湖 朴弼周(1665-1748)에게 수학하였고 뒤에 湖論으로 분류되는 久菴 尹鳳九(1683-1767)에게 수학하여 經學에 힘을 쏟고 특히 禮教에 치중했던 학자이다.⁹⁾

매산은 15세가 되던 경술년(1790) 3월에 관례를 행하고 이듬해 5월에 판서 李滄의 딸 全州李氏를 아내로 맞이하였다. 처음에 매산은 7, 8세 무렵부터 三山齋 金履安을 찾아가 수학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당시에는 과거 공부로 인해 겨를을 내지 못했었다. 이후 경술년(1790) 봄에 속수의 예를 갖추고서 수학하려 했으나 마침 세상일이 어수선하여 역시 실행하지는 못하였다. 다시 다음해 5월에 혼례를 치른 뒤에 찾아뵈려고 생각했

8) 任憲晦, 『鼓山集』 卷16, 「梅山洪先生行狀」.

9) 洪直弼, 『梅山集』 卷38, 「立菴朴公墓誌銘」.

었는데 뜻밖에 부음을 먼저 전해 듣게 되었다고 한다.¹⁰⁾ 결국 김이안에게 수학하려는 애초의 계획은 실행하지 못하였다.

매산은 17세가 되던 임자년(1792) 9월에 貞洞에 있던 近齋 朴胤源을 찾아가 수업을 청하였다. 당시에 매산을 만난 근재와 근재를 만난 매산은 각각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의 道를 맡길 곳이 있게 되었다.

내 나이 17세에 이르러 비로소 학문에 뜻을 두게 되었다.¹¹⁾

이후 근재가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 매산은 수시로 선생을 찾아가 질정하고 학문을 토론하였다. 이렇게 매산은 근재를 만난 뒤에 비로소 본격적으로 학문의 영역에 진입할 수 있었고 학자로서 이름도 얻을 수 있게 되었다. 매산은 근재를 만난 이후로 뼈를 깎는 듯이 노력을 다하여 겨울에도 따뜻한 방에 처하여 있지 않았고 배가 고파도 술임을 먹으면서 책상에서 물러나지 않고 몸을 곳곳이 세우고 앉아서 공부에 집중하였다고 한다. 매산이 얼마나 학업에 힘을 쏟았던지 그 소문이 대궐에까지 들려 “洪某가 요즘도 도포를 입고서 온종일 몸을 세우고 앉아 책을 읽는다던가?”라고 정조가 주변 사람에게 거듭 물었을 정도였다.¹²⁾

1. 處士的 삶의 지향

매산은 여러 차례 출사의 기회가 주어졌고 국왕의 간곡한 부름도 있었지만 일찍부터 출사를 단념하고 끝까지 그 뜻을 꺾지 않았다. 일찍이 “나이 어려 아는 바 없지만, 名節을 귀하게 여기노라.[少小無所識, 猶能貴名節.]”¹³⁾라고 선언하였듯이 선비로서 명절을 지키고 도학에 매진하는

10) 洪直弼, 『梅山集』 卷53, 「年譜辛亥」.

11) 洪直弼, 『梅山集』 卷53, 「年譜壬子」.

12) 洪直弼, 『梅山集』 卷53, 「年譜壬子」.

것이 바라는 유일한 것이었다.

20세가 되던 1795년에 11수로 엮은 「自警吟」이라는 시의 두세 번째 수에서 아래와 같이 노래하였다.

天下英才亦何限	천하의 영재가 어찌 적으랴만
皆從科擧誤平生	과거 공부로 모두 평생을 그르치네
方知內寇尤爲害	문안의 적이 더 해로움을
栗老此言夙講明	울곡 노인께서 일찍이 말씀하셨지

栗老此言夙講明	울곡 노인께서 일찍이 말씀하셨는데
肯從名利日營營	어찌名利로 날마다 치달리랴
已知才短違兼善	재주가 적어 兼善은 못하지만
宜向殘經了此生	남은 경전 읽으며 이승을 마치리랴

천하의 많은 영재들이 오직 과거에 마음을 써서 일생을 허비하느라 타고난 자신의 역량을 다 발휘하지 못하고 있음을 안타까워하였다. 그리고 이들을 반면교사로 삼고 울곡의 지적을 준수하여 자신은 그런 실수를 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였다. 명리를 좇아 세상을 기웃거리거나 출사하여 兼善天下하기를 기대하지도 않고 오직 자신의 분수에 맞게 처사로 지내면서 경전 공부에 온 힘을 다하겠다는 의미이다.

앞의 시에는 “울곡이 ‘이단은 문밖의 적이요 과거는 문안의 적이다.’라고 하였다.”라는 주석이 달려 있다. 매산은 울곡의 말을 확장시켜 문안에서 공격하는 과거의 폐해가 문밖에서 공격하는 이단의 폐해보다 더 크다고 선언하였다.

그러나 매산은 자신의 뜻과는 달리 한동안 과거에서 자유롭지 못하였다. 부친의 간곡한 권유를 마다할 형편이 되지는 못하였기 때문이다. 결국 사마시에 세 차례 응시하여 1801년 2월에 진사 초시에 합격하고 이어서 회시에 나아간 일이 있었다. 이때 회시에서 이름을 올리지 못하여

13) 洪直弼, 『梅山集』 卷1, 「又奉古體一首用敘向慕之忱」.

마침내 과거 공부를 그만둘 수 있었다고 하였다. 매산은 후일에 “나는 어려서부터 벼슬에 나아가 출세하는 것을 단념하였다. 세 차례 사마시를 본 것도 억지로 아버지의 명을 받든 것일 뿐이다. 대과는 한 차례도 응시하지 않았다.”¹⁴⁾라고 술회하였다.

매산이 대과에는 응시하지 않았으나 35세 때인 경오년(1810)에 처음으로 돈녕부 참봉에 임명된 뒤로 말년에 형조 판서에 제수되기까지 많은 관직에 제수되었다. 하지만 갑술년(1814)에 세자익위사 세마에 제수되어 한 차례 사은숙배하였을 뿐이다. 당시에 익종이 새로 저위에 올라 서연을 위해 엄선한 궁관에 선발되었기에 감격하여 명을 받들어 8일 동안 숙직하면서 다섯 차례 서연에 참석하고 물러난 것이 매산이 실제로 응한 관료 생활의 전부이다.

매산에게 제수되었던 관직을 대략 정리해보면 아래의 표와 같다.

[표 1] 매산의 관력

연도(나이)	월	관 력
1801(26세)	2월	進士 初試 합격
1810(35세)	12월	敦寧府 參奉 제수
1814(39세)	2월	世子翊衛司 洗馬 제수
	윤2월	上京하여 謝恩肅拜
1822(47세)	윤3월	長興庫 奉事 제수
1838(63세)	12월	才學에 천거
1839(64세)	1월	掌樂院 主簿 제수
	1월	黃海 都事 제수
1840(65세)	3월	군자감 정 제수
1841(66세)	7월	經筵官에 선발
	8월	사헌부 지평 제수
	12월	사헌부 집의 제수

14) 洪直弼, 『梅山集』 卷53, 附錄 「年譜辛酉」.

연도(나이)	월	관 력
1843(68세)	9월	輓章製述官 차임
1844(69세)	8월	通政大夫 가자, 공조 참의 제수
	9월	승정원 동부승지 제수
1845(70세)	7월	성균관 채주 제수
1846(71세)	4월	遷陵輓章製述官 차임
1849(74세)	8월	輓章製述官 차임
1851(76세)	1월	가선대부 가자, 사헌부 대사헌 제수
	9월	사헌부 대사헌 제수
1852(77세)	1월	資憲大夫 가자, 知敦寧府事 제수
	7월	형조 판서 제수

매산은 돈녕부 참봉에 제수된 이후로 오랜 동안 관직의 유혹이 끊이지 않았다. 더구나 노년에 이르러서는 국왕의 소명이 계속되었음에도 끝까지 응하지 않고 처사로서의 삶을 고수하였다. 그만큼 그의 뜻은 완고한 것이었다.

처세에 대한 매산의 속내는 아래의 언급에서도 엿볼 수 있다.

나는 약관 시절부터 항상 은거하려는 소원이 있어서 도성에 사는 것을 잠시 여관에 묵고 있는 듯이 여겼었다. 형편이 여의치 않아서 소원을 이루지 못하다가 을미년(1835) 5월에 겨우 玄石의 강변에 살 곳을 마련하였다. 도성에서 10리가 떨어진 가까운 곳이어서 기상이 끝내 군색하고 심원한 의취도 느껴지지 않았지만 저자거리에서 세속의 티끌 먼지를 뒤집어쓰며 사는 것에 견준다면, 새가 새장을 빠져나가 해나무에 오르고 고개 위로 날아오르는 것 같은 기분 그 이상이다.¹⁵⁾

매산은 약관 시절부터 초야로 물러나 은거하려는 뜻을 세워두고 있었다. 이는 약관 시절에 읊은 「自警吟」에서 내비쳤던 생각과 다르지 않다. 하지만 슬가하고서 도성 밖으로 나가기까지는 한참의 세월이 더 지나야 했다.

15) 洪直弼, 『梅山集』 卷1, 「和陶淵明歸去來辭」.

매산은 1826년 8월 중순에 연천의 袞婆坪이라는 곳에서 玄溪를 바라 보며 “푸른 솔이 흰 구름 속에서 은은히 보이는, 이곳에 7대 선조의 의관이 묻혀 있다오. 인생은 송추 아래에서 늙어야 하니, 천금을 주고 산을 사려던 이 누구였던가.”¹⁶⁾라고 노래하였다. 고향에 대한 생각을 한시도 버리지 못한 그의 심경이 비추어진다.

가사평은 현재의 경기도 전곡과 연천 사이에 펼쳐져 있는 평야 지역을 일컫는 이름이다. 玄溪는 연천 동쪽으로 10리쯤 떨어진 곳을 지나는 시내의 이름이다. 매산은 淸華山의 서쪽 漳水의 동쪽 부근에 선대의 선산과 世居地가 있다고 하였다.¹⁷⁾ 漳水는 연천의 옛 이름이 漳州인 까닭에 붙여진 이름이다.¹⁸⁾ 매산의 조부도 이곳에 안장되어 있고 산 아래에 敬止齋라는 여막이 있었다.¹⁹⁾

매산도 세상을 떠난 뒤에 처음에는 광주의 九壽洞에 묻혀 있다가 15년이 지난 정묘년(1867) 5월에 竹山郡 近二面 外草里 谷村의 남향 언덕으로 옮겨 정부인 전주 이씨와 합장되었고 다시 천장되어 현재는 청화산 자락에 묻혀 있다.²⁰⁾

매산은 1826년 8월에 창작한 다른 시에서도 이렇게 읊조렸다.²¹⁾

我屋梅山上	매산 위에 집을 두고
圖書晚計留	도서로 만년의 계획을 삼네
起居聊自適	기거하기 자유로우니
身世欲何求	이내 신세 무엇을 더 바라라

16) 洪直弼, 『梅山集』 卷2, 「袞婆坪望玄溪」.

17) 洪直弼, 『梅山集』 卷2, 「敬止齋」; 『梅山集』 卷44 「祖考牧使贈吏曹參判府君墓誌」.

18) 李夏坤, 『頭陀草』 冊13, 「臨漳書院通文」.

19) 洪直弼, 『梅山集』 卷8, 「上著菴俞丈[漢雋·戊辰七月二日]」.; 卷53 「年譜丙辰」.

20) 趙秉憲, 『肅齋集』 卷24, 「梅山洪先生墓誌銘」. 外草리는 용인시 처인구의 백암면 지역에 속해 있던 곳이다.

21) 洪直弼, 『梅山集』 卷2, 「易安齋」.

梅山은 당시의 행정구역으로 始興縣의 東面에 위치한 산의 이름이다. 매산의 선친이 이 산의 乙坐에 모친과 함께 합장되어 있었다.²²⁾ 동면은 현재의 노량진 지역에 해당한다. 이곳에서 도서를 곁에 두고 읽매인 것이 없이 자유롭게 독서와 강학을 하면서 여생을 보낸다면 더 바랄게 없다는 것이다. 매산은 결국 1842년에 이곳으로 거처를 옮겼다. 양친의 묘가 있는 곳이었기 때문일 것이다.

매산은 1827년 2월에 부친 洪履簡이 75세를 일기로 별세하여 상을 치르고 1831년에 회현방으로 거처를 옮겼다. 그리고 4년이 지난 1835년 5월에 마침내 도성 밖으로 벗어나 玄石의 小東樓로 이사하였다. 현석은 현재의 밤섬 맞은편에 위치한 서울 현석동 지역을 이른다. 소동루는 이전에 이곳에 머물던 박세채가 세운 건물이다. 매산은 늘 도성에서 벗어나고 싶었지만 연로한 부친을 봉양하기 위해 실행하지 못하다가 이때 이르러 자신의 뜻을 결행할 수 있었다.

이후 매산은 1842년 9월에 도성이 마음에 편치 않아 강을 건너 鷺湖로 한차례 더 이사하였다. 이곳도 도성에서 거리가 먼 곳이 아니어서 시골로 물러나 여생을 보내리라 생각했지만 결국 그렇게까지는 못하였다. 노호는 현재의 노량진 지역이다. 당시의 행정구역으로는 京畿 果川縣 下北面 鷺梁里 梟洞²³⁾에 속하였다. 매산은 이곳에 蘆漪精舍를 마련하여 강학에 힘쓰다가 생을 마감하였다.

매산은 노량진으로 이사하기 두 해 전에도 벼슬을 멀리하려는 단호한 의지를 피력한 바 있다.

名利前頭萬里餘	名利로 나아가는 1만여 리 길
夢魂猶未出林廬	꿈에서도 집을 나서 나아가지 않아
來去鶴書渾不管	소명이 내려도 전혀 관여치 않고
野心長與白雲虛	영원히 흰 구름처럼 야심을 비울 뿐이랴오

22) 洪直弼, 『梅山集』 卷50, 「先考同敦寧府君家狀」.

23) 『승정원일기』, 「헌종 10년(1844) 8월 25일」 기사 참조. 『승정원일기』, 「철종 2년(1851) 10월 25일」 기사에는 매산의 집이 果川의 鷺梁 掛谷리에 있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이는 1840년 3월에 군자감 정을 사임하고 그 감회를 시로 노래한 시이다.²⁴⁾ 꿈에서도 명리를 좇지 않았다는 말과 아무리 소명이 내려와도 꿈쩍하지 않았다는 말에서 그의 단단한 의지를 엿볼 수 있다. 매산은 대구로 돌아가는 崔義發(1812-?)을 전송하는 자리에서도 “세간의 명리는 모두 거짓이니, 돌아가 사립문 닫고 수초부나 짓게나.”²⁵⁾라고 충고한 바 있다. 마치 하늘 위를 한가로이 무심하게 떠다니는 흰 구름처럼 세상에 대한 헛된 야심을 버린 그였기에 가능한 말과 행동들이었다.

2. 崇儒重道の 학문 활동

매산이 이렇게 출사의 길을 마다하고 처사로 살기를 바랐던 것은 유도를 회복하고 기강을 세워 풍속을 바로 잡기 위한 뜻을 이루고자 해서였다. 여기에는 그럴만한 그 나름의 논리가 있다.

세교의 성쇠와 國祚의 장단이 모두 유도의 흥체에 달려 있다.²⁶⁾

모름지기 ‘독실하게 믿고 배우기를 좋아하며 죽음으로 지켜 도를 선하게 한다.[篤信好學, 守死善道.]’를 8자의 부절로 삼아야 한다.²⁷⁾(1851년 2월 기록)

매산의 말이다. 매산은 세상의 교화와 국가의 명운이 모두 유도의 흥하고 쇠함에 달려 있다고 진단하였다. 세상을 교화하고 국가의 명운을 지키기 위해서 가장 좋은 처방은 당연히 유도를 진작시키는 것이 된다. 이런 까닭에 매산은 유도를 진작시킬 것을 늘 다짐하였다. 유도가 진작되지 못하고 쇠락하면 국가의 명운도 끊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매산은

24) 洪直弼, 『梅山集』 卷2, 「解官識感」.

25) 洪直弼, 『梅山集』 卷3, 「送崔大爲[義發]還大邱」.

26) 趙秉憲, 『肅齋集』 卷24, 「梅山洪先生墓誌銘」.

27) 任憲晦, 『鼓山集』 卷19, 「梅山先生語錄」.

명나라의 경우를 그 사례로 들었다.

명나라 말에 학술이 분열되어 왕수인과 진현장 등이 朱門에 깃발을 세우고서 괴이한 학설을 날조하여 사설의 효시가 되면서 이적의 화가 일어나게 만들었다.²⁸⁾

명나라가 망한 것은 闖賊 이자성에게 망한 것도 黨禍로 망한 것도 아니라 학술 때문에 망한 것이라고 하니 老洲가 탁견이라고 칭찬했다.²⁹⁾

명이 멸망한 진짜 이유는 이자성의 반란과 편당의 화에 있지 않고 학술의 분열에 있다고 보았다. 여기에서 말하는 학술은 곧 유학을 가리킨다. 왕수인과 진현장 등이 학설을 날조하여 학술이 분열되고 유학이 그 위상을 잃게 되면서 결국 반란이 발생하고 명이 멸망함에 이르게 되었다는 논리다. 조선은 이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유학의 도를 회복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하였다.

그런데 19세기 전반 조선의 상황은 명나라의 경우와 동일하지는 않았다. 순조 즉위 이후 외척에 의한 세도 정치가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면서 부패가 만연하고 매관매직도 횡행하였다. 급기야 부패한 관리들이 기회를 틈타 전정, 군정, 환곡 세 가지의 제도를 악의적으로 이용하여 공공연하게 수탈을 자행하면서 백성들은 도탄에 빠져 터전을 버리고 이탈하여 유리결식하는 지경에까지 이르고 말았다.

궁지에 몰린 백성들은 불만이 극도로 고조되었고 축적된 불만은 결국 민란의 형태로 표출되었다. 1811년에 평안도 지역에서 발생한 홍경래의 난은 이런 실상을 잘 보여주는 사건이다. 더구나 난이 발생하여 청천강 이북 지역까지 건잡을 수 없이 그 세력 범위가 확장되었을 만큼 당시의 상황은 많은 동조 세력을 얻고 여론에서 밀리지 않았던 매우 긴박하고 심각한 것이었다. 이 문제는 사건이 진압된 이후에도 여전히 해소되지

28) 趙秉憲, 『肅齋集』 卷24, 「梅山洪先生墓誌銘」.

29) 趙秉憲, 『肅齋集』, 卷24, 「梅山洪先生墓誌銘」.

못하였고 오히려 더욱 심화되는 양상이었다. 철종 임술년(1862)에 이르러 단성현에서 시작된 농민 봉기가 전국 70여 읍으로 번져나가 거국적 항쟁으로 발전한 사건이 이를 증명한다. 19세기 전반의 조선 사회는 이렇게 언제 폭발할지 알 수 없는 극심한 혼란 상황이었다.

또한 천주교가 서학과 함께 전래되어 북학의 풍조를 거들어 18세기 조선 사회의 변화와 발전에 기여하면서 그 세력을 확장해나갔다. 그러자 이에 따라 기성의 가치 질서와 충돌하는 국면을 피하지 못하고 지속적인 저항에 부딪힐 수밖에 없었다. 특히 순조 즉위 이후 세력을 얻은 벽파의 개입으로 19세기 전반쯤에 이르러 정치적 압박이 거세져 그 세력이 급격하게 쇠락하는 굴곡을 겪고 있던 상황이었다.

매산은 이러한 국가적 위기 상황 속에서 원인에 대한 진단과 타개할 방책을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는데, 명나라의 선례를 보면서 위기의 원인이 학술에 있다고 판단하고 유도를 회복시킴으로써 현재의 위기 국면을 호전시킬 수 있다고 보았던 것이다.

매산은 학술의 문제와 관련하여 다시 異端과 流俗의 폐해를 지적하였다. 여기에서 이단은 곧 천주교를 지적한 말이다. 매산은 “耶蘇의 術은 진실로 귀신 도깨비의 허탄한 거짓과 같아서 분별하여 말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³⁰⁾라는 말로 천주교의 부당함을 통렬하게 지적한 바 있다. 이는 학술 위기의 한 원인으로 천주교를 지목한 것이기도 하다. 그러나 매산이 천주교 문제를 더 이상 논란하지는 않았던 듯하다. 이보다는 도리어 유속의 문제가 현실적으로 더 심각하다고 생각하였다.

流俗의 해가 이단보다 심한 것을 통렬하게 말하면서 “성인이 鄉原을 미워한 것이 이 때문이 아니겠는가. 이 폐해를 고치려면 풍속을 바꾸고 기강을 세우고 名檢을 숭상하고 浮華를 물리쳐야 할 뿐이다.” 하였다.³¹⁾

30) 任憲晦, 『鼓山集』 卷16, 「梅山洪先生行狀」.

31) 趙秉憲, 『肅齋集』 卷24, 「梅山洪先生墓誌銘」.

유속의 폐해가 이단의 해보다 심각하므로 이를 고치지 않을 수 없다고 하여 그 처방까지 제시하였다. 처방은 곧 풍속을 바로잡고 기강을 세우고 名檢을 숭상하고 浮華를 물리치는 것이다. 이는 결국 유도를 회복하는 문제로 다시 돌아간다. 유도를 무너뜨린 가장 큰 원인은 유속에 있으니 이를 바로잡지 않으면 유도도 회복할 수 없다. 마찬가지로 유도를 회복하지 않으면 유속도 바로잡을 수 없는 것이 된다. 매산은 “유속이 유학을 원수로 대하여 흠을 잡으려고 못하는 것이 없다. 세교에 해를 끼치는 것이 이단보다 심하다. 우리의 유도에서 보면 黻下에 있던 兇戎처럼 해로운 존재다.”³²⁾라고 하였다.

流俗이 몹시 말랑거리고 번지레하여 圭角을 보이지 않고 염치도 모른다. 이득을 위해 개돼지의 행동도 꺼리지 않는다. 그 유폐를 논하기 전에 이미 夷狄과 禽獸인 것이다. 이로써 삼강이 무너지고 9법이 허물어져 그 폐해가 이단보다 적지 않다.³³⁾

매산은 남에게 각을 세우지도 않고 염치도 차리지 않고 그저 번지레한 거짓 아첨으로 자신을 포장하면서 이득만을 좇는 유속의 행태를 몹시 비판하였다. 이는 그 행태 자체만으로도 이미 이적과 금수와 다를 바가 없고, 더구나 이런 행태로 인해 삼강과 구범이 무너지는 지경에 이르게 되기 때문에 그 폐해가 이단보다 심각하다고 하였다.

이에 매산은 유속을 바로잡는 일이 가장 급선무라고 보았다. 물론 풍속을 바로잡고 기강을 세우고 名檢을 숭상하고 浮華를 물리치는 것이 그 실천 방법이다. 그렇다면 매산은 실제로 이를 어떻게 실천하였던가?

매산은 유속의 혼란을 타개할 실천 방법으로서 심성론과 예학의 탐구에 진력하는 한편 후학 양성을 위한 강학에도 특별히 유념하였다.

32) 洪直弼, 『梅山集』 卷52, 「雜錄」.

33) 任憲晦, 『鼓山集』 卷16, 「梅山洪先生行狀」.

배우려는 마음으로 오는 자이면 모두 받아들여 예를 갖추고 배움을 청하러 온 자들이 문에 가득하였다. 그래도 館穀과 導諭에 정성을 다하지 않음이 없었다.³⁴⁾

배우려는 마음이 있는 사람이면 차별하지 않고 모두 받아들여 문하에 학생이 많았지만 가르치기를 게을리 하지 않았고 정성을 다하였다. 매산이 누구보다 존모하였던 老州 吳熙常도 역시 배우려는 자의 귀천을 구별하지 않고 폭넓게 받아들여 가르쳤는데, 매산도 이런 전통을 물려받아 실천하였다. 오희상은 매산에 대해 ‘大心衆生의 意思가 있는 자로는 내가 이 친구 한 사람을 보았을 뿐이다.’라고 하였다.³⁵⁾ 이에 매산은 세상을 떠나 초상을 치를 적에 知舊와 門人으로서 加麻한 자가 100여 사람에 이르렀다고 전해질 정도로 문하에 많은 제자를 둘 수 있었다.³⁶⁾

하지만 매산이 이렇게 많은 문인을 두었던 것이 결코 학문의 세력화를 위한 것은 아니었다. 그는 늘 지나치게 학문 연원에 얽매이는 배타적 학문 태도를 경계하였다.

세속에서 말하는 心性同異는 仁智에 관한 견해 차이에 불과할 뿐입니다. 어찌 邪正과 淑慝의 차이에 건주겠습니까? 매번 다투어 이기려는 마음을 가져서 애써 스스로 주장하는 자들을 보면 답답함을 견딜 수 없습니다. 杞園도 正菴의 묘지를 썼고 漢湖도 鳳巖의 덕을 행장에 기록하였습니다.³⁷⁾

이는 1845년에 金博淵에게 보냈던 편지의 일부이다. 당시 인물성동이론으로 격론을 벌이던 낙론과 호론 사이에 갈등 국면이 지속되었는데, 매산은 이것이 邪正과 淑慝을 분별하는 의리의 문제가 아닌 이상 학술상의 견해 차이로 대립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설득하고 있다. 杞園과

34) 任憲晦, 『鼓山集』 卷16, 「梅山洪先生行狀」.

35) 趙秉憲, 『肅齋集』 卷24, 「梅山洪先生墓誌銘」.

36) 趙秉憲, 『肅齋集』 卷24, 「梅山洪先生墓誌銘」.

37) 洪直弼, 『梅山集』 卷16, 「答金維誠[博淵·乙巳五月]」.

漢湖가 견해를 달리하는 正菴과 鳳巖을 위해 기꺼이 묘지를 쓰고 행장을 서술하였듯이 상호간에 건전한 교유와 학술 논변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였다. 안타깝게도 후일 매산 문하에서 배출된 전재와 간재 등이 화서 이항로 문하와 논쟁을 벌이면서 충돌하여 매산의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기는 하였지만,³⁸⁾ 매산의 입장에서는 유도가 쇠퇴하는 위기 상황에 처하여 내부에서 파벌을 지어 분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하였던 것이었다.

마찬가지로 지나치게 옛 것에 얽매어 새로운 것을 보지 못하는 태도도 늘 경계하였다. 특히 예학에 있어서 시대의 처지에 맞게 새롭게 변통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하였다. 곧 禮의 常과 變을 철저하게 궁구하고 因革을 정확하게 이해하여 聖人이 예를 만들었던 본래의 취지에 맞게 운용해야지 泥古의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였다.³⁹⁾ 유도가 쇠하여 사회적 지지기반이 약화되어 가고 있는 상황을 직시한 매산은, 예학과 현실의 괴리가 유도의 진작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을 듯하다.

매산이 많은 이들을 배움의 장으로 끌어들이고 수시변통을 강조하였던 것은 이것이 유도를 지키고 유도를 치유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믿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문하의 제자들은 이후 19세기 조선 지식인 사회에서 비중 있는 인물들로 성장하여 斥邪論을 주장하며 유도를 지키고 국가의 명운을 부지하려는 활동에서 상당한 역할을 하였다. 매산이 19세기 전반에 노론에 의해 주도된 척사론의 단서를 제공한 인물로 지목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⁴⁰⁾

38) 최영성, 앞의 논문, pp.70-73.

39) 趙秉憲, 『肅齋集』卷24, 「梅山洪先生墓誌銘」.

40) 노대환, 앞의 논문, pp.79-81.

Ⅲ. 辭理俱臻의 문학과 警世의 시문 창작

1. 辭理俱臻과 陶寫性靈의 문학론

공자는 “辭는 達하게 할 뿐이다.”라고 했는데, 주희는 이를 “辭는 뜻을 전달함을 취할 뿐이요 富麗함을 공으로 삼지 않는다.”라고 풀이하였다.⁴¹⁾ 언사는 풍부하고 화려하기보다 내용 전달에 충실해야 함을 말한 것이다. 곧 내용과 형식의 문제다. 이는 이미 오래된 논쟁거리로 결론을 내기도 어렵지만, 매산의 경우는 기존의 유자들처럼 내용 전달에 방점을 두었다.

근재는 매산의 시문에 대해 그의 행장에서 아래와 같이 서술하였다.

문장이 끝없이 渾浩하고 滂沛하여 어떤 이가 그 요령을 묻자 선생께서 “儒者의 文은 辭達이 중요하다. 저 文에 빠진 자들은 기량이 정밀할수록 심술도 무너진다. 경계로 삼아 본받지 말아야 한다.” 하였다. 시도 雅健하고 冲淡하며 조락을 즐기지 않았다. 쉽게 미칠 경지가 아니라고 모두들 말한다.⁴²⁾

매산의 문장에 대해, 끝없이 渾浩하고 滂沛하다는 말로 먼저 그 특징을 말하였다. 그 요령을 묻는 질문에 매산은 ‘문장의 기량’에 골몰하지 말고 내용 전달, 곧 ‘辭達’에 충실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문맥상으로 보면 ‘渾浩하고 滂沛하다’는 말에 대해서는 이미 서로 암묵적으로 동의하고 있는 듯하다. ‘渾浩’는 물이 성대하게 흘러가는 모양이고 ‘滂沛’도 역시 유사한 의미이다. 마치 강하의 물줄기가 성대한 기세로 하류를 향해 거침없이 흘러가듯이 문장이 막힘없는 기세로 시원스럽고 기운차게 이어져 내려간다는 의미이다. 송나라 蘇洵은 한유의 문장에 대해 ‘장강대

41) 『論語集註』, 「衛靈公」.

42) 任憲晦, 『鼓山集』 卷16, 「梅山洪先生行狀」.

하와 같아서 渾浩하게 流轉한다.”⁴³⁾라고 평하였는데, 같은 의미의 평어로 이해할 수 있을 듯하다.

조선에서는 송시열이 월사와 계곡의 문장을 평하면서 ‘渾浩流轉’이라는 평어를 사용하였다.⁴⁴⁾ 김평묵도 화서 이항로의 문장을 평하면서 “문장에 힘을 다하지 않았어도 아름다운 덕성과 뛰어난 재기가 있어서 高簡謹嚴한 경우도 있고 渾浩滂霈한 경우도 있고 眞摯坦夷한 경우도 있다.”라고 하여 이 평어를 사용하였다.⁴⁵⁾ 대체로 문사의 화려함보다는 그 문세의 장쾌함을 평한 말로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매산은 이처럼 내용을 중시하였지만 그 형식을 간과하지는 않았다. 일찍이 매산은 李鳳秀의 문장에 대해 “문장을 작가처럼 꾸미지 않아도 절로 규범에 맞았다. 특히 書牘에 뛰어나 連篇이나 긴 편지를 종이에 즉시 써내려가면서 다듬고 꾸미지 않아도 辭와 理가 모두 수준에 이르렀다. 가끔 붓끝에 혀가 있는 듯이 거침없어 막을 수 없었다. 이러하니 진실로 辭達이라 할 수 있다.”⁴⁶⁾고 평하였다. 또 李光文의 문장에 대해 “시는 性靈을 풀어내기를 좋아하였고 문은 辭達과 理勝을 얻어 그 원고를 읽으면 그를 이해할 수 있게 된다.”⁴⁷⁾고 평하였다. 이는 타인에 대한 평가이지만 동시에 시문 창작의 문제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밝힌 것이기도 하다.

매산의 시문을 평한 근재의 말을, 매산이 이봉수와 이광문의 시문을 평한 화법으로 해석해보면 대략 아래와 같은 말이 된다.

文은 작가처럼 다듬어 꾸미지 않고 곧장 서술하는데 가끔은 붓끝에 혀가 달린 듯이 거침없이 써내려가도 절로 법도에 맞아 辭達과 理勝이 아울러 이루어진다. 시는 다듬어 꾸미지 않고 성령을 그대로 풀어내어 雅健하고 冲淡하므로

43) 蘇洵, 『嘉祐集』 卷12, 「上歐陽內翰第一書」.

44) 宋時烈, 『宋子大全』 卷139, 「月沙集序」.; 卷156 「谿谷張公神道碑銘并序」.

45) 金平默, 『重菴集』 卷49, 「華西李先生行狀」.

46) 洪直弼, 『梅山集』 卷40, 「襟溪李公墓誌銘[并序·戊申]」.

47) 洪直弼, 『梅山集』 卷36, 「吏曹判書諡文簡李公墓碣銘[并序·己酉]」.

시를 읽으면 절로 시인을 이해할 수 있게 된다.

매산이 참신한 표현과 짜임새로 독자의 관심을 끌어내는 작가의 수법을 추구하지는 않았지만 말과 문리의 정확한 사용으로 자신의 생각을 가장 자연스럽게 표현하였다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다. 金平默도 매산의 문장에 대해 “문장이 단지 흥금에서 흘러나오고 작가의 형식에 매이지 않았지만 득의한 부분은 마치 彭蠡와 洞庭이 太虛를 품고 萬壑에서 호흡하고 있는 것과 같아서 잘라서 말하기 어렵다.”⁴⁸⁾라고 하였다. 매산이 흥금에 품은 생각을 인위적 수사를 더하지 않고 진솔하게 풀어내었을 뿐이지만 이미 헤아릴 수 없는 경지에 이르렀다는 말이다.

매산이 작가의 형식에 얽매이지 않았지만 그 나름으로 일정한 글쓰기 전략이 없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이 역시 형식에 대한 고민이다. 형식에 대한 매산의 생각은 그가 임헌회에게 언급한 아래의 글에서 엿볼 수 있다.

그대의 문사는 恢達하여 여유가 있다. 덧붙여서 작가의 문자에 힘쓴다면 더 좋아질 것이다. 유자가 여기에 전념하여 완물상지에 이르면 안 되겠지만 發揮運用하려면 기대지 않을 수 없다. 겨울에 팔대가를 섭렵해야 하는데, 한유는 배우기 어렵지만 구양수 문장은 매우 좋다. 근세 선배 중에도 陶菴과 漢湖의 법이 매우 바르다.⁴⁹⁾ (1847년 10월 기록)

이미 문세가 광대하고 활달하고 여유가 있으니 작가의 수사 능력까지 갖춘다면 더욱 좋겠다고 권하는 내용이다. 완물상지에 대한 경계를 잊지는 않았으나 그보다는 문학의 현실적 필요성에 주목하면서, 당송 팔대가를 익히되 특히 구양수 문장에 힘쓰고 이재와 김원행의 시문을 아울러 익혀야 한다고 문장 학습의 구체적 방법까지 제시하였다.

매산은 “사마천은 문장에서 孔子이고 한유는 문장에서 朱子이다. 구

48) 金平默, 『重菴集』 卷52, 「梅山洪先生遺事[辛酉]」.

49) 任憲晦, 『鼓山集』 卷19, 「梅山先生語錄」.

양수의 문장도 좋다.”⁵⁰⁾(1845년 10월 기록)고 말한 바 있다. 본디 사마천의 『사기』를 가장 훌륭한 문장 전범으로 생각하고 한유와 구양수를 그 다음으로 생각했던 것이다. 다만 한유의 문장은 배우기 어려우니 구양수를 배우라고 권한 것이다.

매산은 시에 대해서도 간략하나마 자신의 견해를 피력한 바 있다. “평생 시를 짓지 않는 것은 마땅하지 않다.[不宜終身廢詩.]”⁵¹⁾거나 “평소 游泳하는 여가에 풍월을 읊조리고 性靈을 陶寫하는 것이 어찌 도에 해가 되겠느냐.[尋常游泳之暇, 唸呀風月、陶寫性靈, 亦豈至害道哉.]”⁵²⁾고 하여 시의 효용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긍정하고 있음을 밝혔던 것이다. 시와 관련해서 일찍이 아래와 같이 말하였다.

小孩子 “도연명 시가 매우 平淡하여 제가 매우 좋아합니다.”라고 하니, 선생께서 “도연명 시가 정말 좋아 李·杜보다 뛰어나다. 주자도 시를 지을 때는 陶·柳의 법을 따라야 한다고 했다. 유종원의 시는 古詩를 이룬다.”라고 하셨다.⁵³⁾ (1851년 2월 기록)

시에 있어서는 도연명의 시와 유종원의 시를 익혀야 함을 주희의 말을 빌어서 강조하였다. 특히 도연명의 시를 가장 높여서 이백과 두보의 시보다도 좋다고 하였다. 유종원의 경우도 고시를 익혀야 마땅하다고 하였다. 이는 매산이 율격을 강조하는 근체시보다 율격에 자유롭고 진정을 담을 수 있는 고시를 선호했음을 보여준다.

이런 생각은 그의 시에서 대체로 일관되게 적용되었던 듯하다. 매산은 시를 통해 담담하게 자신의 일상을 기록하면서 性靈을 풀어내고 眞意를 담아내기를 원하였다.

예컨대 병신년(1836)에 창작한 「草花」에서 “뜰 가의 이름 없는 풀, 석

50) 任憲晦, 『鼓山集』 卷19, 「梅山先生語錄」.

51) 洪直弼, 『梅山集』 卷23, 「答趙中植[庚寅二月]」.

52) 洪直弼, 『梅山集』 卷17, 「與李丕卿[承祖·戊辰七月]」.

53) 任憲晦, 『鼓山集』 卷19, 「梅山先生語錄」.

양에 외로운 꽃을 피우노라. 사람들이 좋아하건 싫어하건, 천기에 따라 저 홀로 피고지네.[庭畔無名草, 孤花對晚暉. 不關人愛惡, 開謝自天機.]”라고 노래하였는데, 자신의 일상을 이름 없는 풀에 투영시켜 초야에서 영위하는 자유로운 삶의 여유를 담담한 어조로 이야기하고 있는 듯하다. 의론과 주장을 담기보다 일상의 만남과 이별, 기쁨과 슬픔 등의 정서를 담담한 어조로 풀어내기를 좋아하였다.

또한 1838년에 창작한 「卽事」라는 시에서도, “산 아이가 나무를 내다 팔고, 석양에 소를 거꾸로 타고 가는데. 꾸벅꾸벅 졸면서 가니, 公侯를 꿈꾸지는 않으리라.[山童賣柴返, 落日倒騎牛. 時時和睡去, 應不夢公侯.]”라고 하여 일상의 즐거움을 서정적 언어로 표현한 바 있다. 여기에는 어떠한 학적 지향이나 정치적 견해도 배제된 담담한 시어로 채워져 있다. 산에 사는 어린아이가 뿔나무를 내다 팔고서 소를 타고 돌아오는 전원의 한가로운 풍경을 담담한 언어로 묘사한 시이다. 말구의 公侯를 꿈꾸지는 않는다는 말에서 무욕을 추구하는 삶의 지향이 보이지만 여전히 서정적 분위기가 유지되고 있다. 일상의 모습을 문학으로 구현하고자 하는 매산의 시인으로서의 모습이 돋보인다.

2. 發潛闡幽의 기록과 警世의 시문 창작

매산은 도학자의 모습을 갖추려고 노력하면서도 문장에 소홀하지 않았다.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전달하는 중요한 도구임을 충분히 인정하고 학자가 꼭 갖추어야 할 덕목이라고 생각하였다. 매산은 이렇게 말하였다.⁵⁴⁾

학자가 공부해야 마땅한 네 가지는 經, 禮, 史, 文이다. (1844년 2월 기록)

文이 학자의 급무는 아니나 文이 아니면 發揮運用할 수 없다. (1845년 10월 기록)

54) 任憲晦, 『鼓山集』卷19, 「梅山先生語錄」.

매산의 말을 임헌회가 듣고 기록해둔 것이다. 선배 학자들의 주장과 다른 것은 아니지만 매산이 평소 거둬 긍정하고 강조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미를 갖는다.

經, 禮, 史, 文 네 가지 중에 매산이 평생 經과 禮에 진력하였음은 굳이 말할 필요가 없거니와 史와 文에 대해서도 간과하지 않았다. 과거의 역사는 물론 현재의 역사 곧 時事에 대해서도 반드시 알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아울러 이를 기록으로 남겨 후대의 본보기로 삼으려 하였다.

예컨대 매산은 1848년에 임헌회에게 “옛날에 農巖이 학자가 朝紙를 보려는 것을 질책하셨지만 아마도 그렇지는 않을 듯하다. 이는 本朝의 역사다. 다른 시대 역사도 읽는데, 더구나 本朝의 역사라면 알지 않으면 안 된다.”⁵⁵⁾라고 하였다. 처사로서 현실 정치에서 벗어나 있으나 늘 時事에 대한 나름의 견해와 입장을 가지고 현실을 정확하게 인식하고자 하였음을 보여준다. 처세관을 엿볼 수 있는 하나의 시사점이 되기도 하다.

時事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대처가 필요하다는 인식 속에서 자연스럽게 外史氏로서 자신의 역할에도 각별하게 유념하게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⁵⁶⁾

人倫을 애호하고 名節을 존숭하여 忠孝와 貞烈이 특이한 자가 있으면 立傳하거나 碑銘을 써서 숨은 것을 알리고 가려진 것을 드러내주었다.[發潛闡幽] 궁벽한 여항의 미천한 부류라도 그렇게 하지 않음이 없었다. 이는 또한 衰世之感에서 나온 것이다.⁵⁷⁾

인륜과 명절을 실천하는 자가 있으면 아무리 미천한 자라도 그의 선행을 알리기 위해 傳을 짓거나 비명을 써주기를 마다하지 않았다고 한

55) 任憲晦, 『鼓山集』 卷19, 「梅山先生語錄」.

56) 매산은 1834년에 작성한 「朴燁傳」에서 자신을 外史氏로 일컬었다.

57) 趙秉憲, 『肅齋集』 卷24, 「梅山洪先生墓誌銘」.

다. 숨어서 알려지지 않는 덕행[潛德]과 가려서 드러나지 않은 훌륭한 행실[幽光]을 알리고 드러내는 일을 스스로 자임한 것은⁵⁸⁾, 이것이 인륜과 명절에 보탬이 되기를 바랐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적 공간이나 민간에서 이루어진 일들까지 망라하여 미담들을 기록으로 남기려 하였다.

실제로 간행본 『매산집』에는 154편의 碑誌類 산문과 53편의 傳狀類 산문이 수록되어 있다. 이는 일반적인 경우에 비해 많은 편수라고 할 수 있다. 더욱이 산삭된 것을 합산하면 그 편수는 두 배 가까이 늘어난다. 간행본에서 산삭된 것까지 포괄하고 있는 필사본의 편수는 碑誌類 산문이 288편이며 傳狀類 산문이 90편이다. 간행본과 필사본의 작품을 통합하여 계산하면 각각 299편과 97편에 이른다. 역대의 어떤 문인에 견주어도 뒤지지 않는 적지 않은 수량임은 분명하다.

[표 2] 필사본과 간행본 수록 전기 자료 현황⁵⁹⁾

문체	총 편수	간행본에 수록된 편수	필사본에 수록된 편수
神道碑	22	19	22
廟庭遺墟碑	10	7	9
墓碣銘	111	40	108
墓表	12	2	12
墓誌銘	144	86	137
謚狀	4	2	4
行狀	49	33	42
遺事	3	3	3
傳	41	15	41
합계	396	207	378

58) 任憲晦, 『鼓山集』 卷16, 「梅山洪先生行狀」, “苟有忠孝貞烈, 或立傳、或銘墓, 闡發其潛德幽光.”

59) 이은주, 앞의 논문, p.34. [표 4-7] 참조. 편수의 오류가 있어 수정하였음.

위의 표는 비지와 전장에 해당하는 산문을 문체별로 분류하여 그 편수를 기록한 것이다. 다만 필사본의 경우 최초 수합본과 이후 편찬 과정에서 생산된 2차, 3차 전사본이 정리되지 않은 채로 뒤섞여 2, 3차례 이상 중복 출현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개별 작품별로 분류하기도 어려웠고 그 편수를 헤아리기도 쉽지 않았다. 또한 필사본의 편수와 총 편수의 차이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필사본이 전체 작품을 망라하지 못하였을 가능성도 커서 위에 제시한 수치가 정확하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그 차이가 크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

매산은 자신이 이처럼 타인의 숨어 있는 선행을 굳이 기록하려는 것은 衰世之感 때문이라고 하였다. 衰世를 치유하고 회복시키기 위한 하나의 처방으로써 忠孝와 貞烈이 있는 자의 행실을 傳狀과 碑誌에 기록하여 알리고자 하였다는 뜻이다. 이 때문에 發潛闡幽의 일을 自任하여 中外 인물에 대한 碑誌와 傳狀을 부탁 받으면 가능한 모두 응해주었다.⁶⁰⁾

매산이 창작한 비지전장의 작품 중에서 전 작품과 묘갈명 작품에 관한 정보를 아래에 소개해본다.

[표 3] 필사본과 간행본 수록 전 작품 현황⁶¹⁾

	작품명	시기	주인공	간행본	필사본		작품명	시기	주인공	간행본	필사본
1	諸忠壯公洙傳		諸洙		<input type="checkbox"/>	22	炭才傳	1849	炭才金氏		<input type="checkbox"/>
2	贈統制使諸公傳		諸景彧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23	邊就逸海逸兄弟傳	1850	邊氏兄弟		<input type="checkbox"/>
3	宋將軍傳	1846	宋○○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24	廉史崔泰齊父子傳		崔泰齊		<input type="checkbox"/>
4	上東民傳	1820	上東民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25	愍貞嬪楊氏傳	1846	貞嬪楊氏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60) 金平默, 『重菴集』 卷52, 「梅山洪先生遺事[辛酉]」.

61)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필사본은 전 작품이 권20, 권74, 권206, 권207, 권208에 수합되어 있는데, 권20과 권74의 것은 권208의 pp.1-70과 동일한 본으로 국립중앙도서관의 작업 과정의 오류로 보이므로 논의에서 제외한다. 권206, 권207, 권208에 실린 전 작품 역시 세 차례 전사된 것이 따로 수합된 것이므로 대체로 중복된다.

5	姜瑗傳	1833	姜瑗	□	□	26	賣菜嫗傳	1847	賣菜嫗		□
6	朴燁傳	1834	朴燁	□	□	27	孝女張氏婦傳	1834	張氏婦		□
7	許乘傳	1834	許乘		□	28	凝川兩孝婦傳		朴氏 ⁶²⁾		□
8	兵使楊公傳	1846	楊治	□	□	29	權烈婦傳	1832	權氏		□
9	閔孝子傳	1811	閔弼文		□	30	烈女鄭淑人傳	1834	鄭氏		□
10	嶺南二孝子傳	1832	李氏金氏		□	31	烈女李氏傳	1843	李氏		□
11	孝子吳公載能傳	1832	吳載能	□	□	32	李節婦傳	1849	李氏		□
12	金孝子傳	1850	金氏		□	33	崔烈婦傳	1851	崔氏		□
13	孝子李龍大傳	1850	李龍大		□	34	朱烈婦傳	1850	朱氏		□
14	趙天漢傳	1851	趙天漢		□	35	崔烈婦傳		崔氏		□
15	洪氏三世孝烈傳	1850	洪汝滉 ⁶³⁾		□	36	蔡烈婦傳		蔡氏		□
16	金庾彥傳	1849	金庾彥	□	□	37	俞節婦傳		俞氏		□
17	清溪朱公小傳	1849	朱潛	□	□	38	李烈女傳	1850	李氏	□	□
18	進士徐錫麟傳	1837	徐錫麟	□	□	39	趙烈女傳	1793	趙氏	□	□
19	石居士傳	1850	石繼祖		□	40	義妓駕鶴仙傳	1802	駕鶴仙		□
20	梁益標傳	1836	梁益標		□	41	妓瓊春傳	1820	瓊春	□	□
21	丁希泰傳	1842	丁希泰	□	□		총 41 편			15	41

[표 4] 필사본과 간행본 수록 표갈명 작품 현황

	작품명 ⁶⁴⁾	시기	墓主	간행본	판본		작품명	시기	墓主	간행본	판본
1	內舅紫閣山人...	1831	朴聲漢	□	□	57	慕齋吳公...		吳弼周		□
2	成均學正洪君...	1832	洪龍圭	□	□	58	雪潭李公...	1847	李遠欽		□
3	司諫監察朴君...	1834	朴命壁	□	□	59	持平權公...		權瑞東		□
4	仁村趙公...	1840	趙銘	□	□	60	進士任公...	1842	任錫禹		□
5	孝子龔翁任公...	1841	任泰春	□	□	61	義濟府都諱朴公...	1823	朴		□
6	醉菊任公...	1842	任天模	□	□	62	贈司僕寺正洪公...	1835	洪啓宗		□
7	贈左承旨旺林李公...	1844	李行祥	□	□	63	徽寧縣參諱閔公...	1839	閔鳳赫		□
8	明灘成公...	1844	成揆憲	□	□	64	處士沈君...	1839	沈焄		□
9	贈史曹參議李公...	1844	李義淵	□	□	65	主簿許公...		許懋		□
10	徐汲齋申公...	1845	申在應	□	□	66	贈史曹參議李公...	1844	李義淵		□
11	判中樞贈右議	1845	權常愼	□	□	67	都總管李公...		李明運		□

62) 金積善의 子婦 朴氏와 嚴瑢宅의 아내가 된 朴氏의 딸.

63) 洪汝滉, 증손자 洪夏任, 현손자 達源의 처 朴氏.

	政權公…									
12	大司諫金公…	1847	金金+孚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68	悅菴金公…	1846	金玆大	<input type="checkbox"/>
13	軍資監正吳公…	1848	吳致成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69	永庫別檢贈戶曹參判金公…	1850	金璵	<input type="checkbox"/>
14	贈副提學桃園俞公…	1849	俞炯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70	贈吏曹參判娛軒尹先生…		尹冕東	<input type="checkbox"/>
15	僉樞崔公…	1838	崔斗南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71	處士文公…		文益漸	<input type="checkbox"/>
16	承文院交理金公…	1851	金鼎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72	處士朱公…		朱欽晦	<input type="checkbox"/>
17	司饗院副正遜軒李公…	1849	李緝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73	贈童蒙教官辛公…		辛師夏	<input type="checkbox"/>
18	東溪崔公…	1849	崔應立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74	同副承旨閔公…		閔百昌	<input type="checkbox"/>
19	聽潤堂李公…	1849	李志完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75	贈弘文館正字李公…		李鎮國	<input type="checkbox"/>
20	渭原郡守贈禮曹參判尹公…	1849	尹東郊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76	處士李公…	1847	李義養	<input type="checkbox"/>
21	吏曹判書謚文簡李公…	1849	李光文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77	同中樞李公…	1848	李鳳翼	<input type="checkbox"/>
22	成均進士東湖鄭公…	1849	鄭相詹	<input type="checkbox"/>		78	同中樞趙公…	1848	趙重瞻	<input type="checkbox"/>
23	可庵崔君…	1849	崔濟默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79	贈刑曹參判李公…	1849	李儒弼	<input type="checkbox"/>
24	恥庵李先生…	1850	李之濂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80	贈兵曹參判李公…		李儒成	<input type="checkbox"/>
25	贈持平林公…		林亨業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81	南礪處士朴公…		朴宗赫	<input type="checkbox"/>
26	月谷柳公…		柳宗興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82	生員趙公…	1851	趙存榮	<input type="checkbox"/>
27	梧潭權公…		權必稱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83	學生玄公…		玄命胄	<input type="checkbox"/>
28	孝子文化縣令俞公…		俞彥謙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84	兵使沈公…		沈楷	<input type="checkbox"/>
29	僉樞趙公…		俞瀟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85	學生林公…	1846	林齊天	<input type="checkbox"/>
30	白川郡守贈工曹參議張公…		張應祺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86	孝子金公…		金龍根	<input type="checkbox"/>
31	孝子崔公…		崔光漢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87	持平李公…	1849	李亨泰	<input type="checkbox"/>
32	處士愼公…	1851	愼性烈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88	孝子贈童蒙教官柳公…	1849	柳馨浩	<input type="checkbox"/>
33	尙州散使俞公…		俞秉柱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89	學生尹君…	1849	尹稚維	<input type="checkbox"/>
34	敦寧都正金公…	1846	金樂禮	<input type="checkbox"/>		90	張君周源…	1851	張周源	<input type="checkbox"/>
35	敬陵參奉默齋鄭公…		鄭光毅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91	處士全公益恒…	1833	全益恒	<input type="checkbox"/>
36	吏曹參判贈左贊成尹公…		尹命烈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92	贈童蒙教官金公…	1848	金聲益	<input type="checkbox"/>
37	天安郡守金公…		金克善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93	學生李公烈婦		李昱妻	<input type="checkbox"/>

							黃氏…					
38	芝山趙公…		趙有憲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94	孺人平山申氏…	1849	尹文璋妻			<input type="checkbox"/>
39	學生鄭公…		鄭壽國	<input type="checkbox"/>		95	魯谷馬公…	1838	馬游			<input type="checkbox"/>
40	孝子尹君…	1849	尹文璋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96	孝子全公…	1809	全孝源			<input type="checkbox"/>
41	休川朴公…	1848	朴淳		<input type="checkbox"/>	97	孝子許公…	1850	許稷			<input type="checkbox"/>
42	訓導金公…	1845	金景憲		<input type="checkbox"/>	98	通德郎朴君…	1852	朴興宗			<input type="checkbox"/>
43	岐峰白公…		白光弘		<input type="checkbox"/>	99	學生李公…		李馥			<input type="checkbox"/>
44	弘文館校理公…	1849	朴貞元		<input type="checkbox"/>	100	參奉李公…	1849	李恂			<input type="checkbox"/>
45	孝子司饗院奉事俞公…		俞敬仁		<input type="checkbox"/>	101	贈童蒙教官鄭公…		鄭仁復			<input type="checkbox"/>
46	孝子司瞻寺參奉俞公…		俞名立		<input type="checkbox"/>	102	熊川縣監裴君…		裴化鳳			<input type="checkbox"/>
47	成均生員龍岡鄭公…	1848	鄭文益		<input type="checkbox"/>	103	龍安縣監楚公…	1846	楚海昌			<input type="checkbox"/>
48	退阜趙公…	1849	趙榮生		<input type="checkbox"/>	104	僉樞尹君…		尹宗殷			<input type="checkbox"/>
49	童蒙教官贈司僕寺正趙公…	1849	趙燾		<input type="checkbox"/>	105	玄○○…		玄○○			<input type="checkbox"/>
50	九一房公…	1851	房復齡		<input type="checkbox"/>	106	贈吏曹參判公…		朴宗翊			<input type="checkbox"/>
51	順天府使隱清齋金公…	1848	金春慶		<input type="checkbox"/>	107	處士金公…	1850	金一奎			<input type="checkbox"/>
52	隱谷金公…	1848	金禮慶		<input type="checkbox"/>	108	外祖父母墓碣追誌	1813	外祖父母			<input type="checkbox"/>
53	同中樞洪公…	1835	洪澹		<input type="checkbox"/>	109	敦寧府都正張公…	1844	張聖佐			<input type="checkbox"/>
54	龍湖吳公…	1845	吳弘績		<input type="checkbox"/>	110	僉樞朴君…		朴受和			<input type="checkbox"/>
55	贈左承旨李公…	1845	李厚根		<input type="checkbox"/>	111	益安大君諡安襄公墓碑銘	1847	李芳毅			<input type="checkbox"/>
56	贈贈參判公…	1835	洪斗海		<input type="checkbox"/>		총 111편				40	108

위의 표에서 알 수 있듯이 매산이 입전하고 있는 인물들은 忠, 孝, 烈에 관련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이는 매산이 衰世를 치유하기 위한 처방으로서 人倫과 名節에 주목하고 있었던 것과 연관이 된다.

아울러 매산이 의도하지는 않았을 수 있지만, 그 주인공들이 사대부가의 인물 외에도 민간의 서민들과 기녀에 이르기까지 하층에 속한 여러 인간 군상들이 망라되어 있다는 점도 시선을 끄는 부분이다. 전 작품

64) ‘墓碣銘’을 ‘…’로 표기하였다.

뿐만 아니라 묘갈명과 묘지명에서도 여성과 하층을 그 주인공으로 한 경우가 적지 않았다. 특히 개성 지역과 관북 지역 출신 인물이 상당히 많이 출현하고 있다는 점도 흥미롭다. 이는 노주 오희상이 평소 북방 지역의 풍기가 다른 곳에 비해 덜 훼손되어 가르칠 만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⁶⁵⁾ 실제로 그 문하에서 이 지역 출신 학생들이 많이 수학하였는데 매산이 그의 문하에 자주 출입하였던 것과 관련이 있을 듯하다.⁶⁶⁾

매산은 비지와 전장을 통해서는 인륜과 명절을 장려하고 본보기를 보여 쇠퇴한 당세의 풍속을 진작시키기를 염원하였다면, 3,555수에 달하는 시를 통해서는 자신의 일상과 시사를 기록하였다. 여기에는 고단한 백성을 대변하고 세상의 모순을 비판하는 시도 여러 수 포함되어 있어 사회를 견제하는 士로서의 본연의 책무를 의식하였음을 보여준다.

時事와 警世에 관련되어 있는 몇 수의 시를 아래에 소개한다.

食不充腸衣不完	밥이 부족하고 옷도 부족하니
雪中凍殺幾袁安	눈 속에서 몇 원안이 얼어 죽었을까
安得邊生九州被	어찌하면 邊生の 九州 이불 얻어
帡幪寒士破愁顏	寒士를 덮어 시름을 풀어줄까

위의 시는 1823년에 창작한 「苦寒」이라는 제목의 시이다. 袁安은 후한 때의 선비로 낙양에 많은 눈이 내리자 굶주려 집안에 쓰러져 있었다는 고사가 있다. 폭설로 양식이 귀해진 백성들이 음식을 구하러 동분서주하는데 차마 이런 어려운 시절에 자기까지 남을 찾아가 양식을 구할 수는 없다고 하여 배를 굶았던 것이라고 한다. 매산은 당시 조선 사회에 이 원안처럼 기근에 시달리다가 결국 죽음에까지 이르는 빈한한 사람들의 처지를 걱정하고 있다. 매산이 이에 대해 실천 가능한 현실적 대안을

65) 吳熙常, 『老州集』 卷9, 「與李性老」.

66) 洪直弼, 필사본 『梅山集』 卷189, 「韓君有觀墓誌銘[癸巳]」, p.82, “余嘗從老洲吳先生, 觀禮於崧陽, 譽髦聽講, 升降揖讓, 濟濟有中矩之象, 心異之. 後崧士多及老洲之門, 先生每言闕八路學子, 而惟崧生不失儒素樣子, 眞可教.”

제시하지는 못하였지만, 당시의 힘겨운 시대 현실에 대한 깊은 우려를 표한 것만큼은 분명하다.

부정부패로 사회 불안이 극에 달하던 19세기 전반은 실제로 기근에 괴로워하는 가난한 백성들이 살던 곳을 이탈하여 유리걸식하다가 반란을 꿈꾸는 극단의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시절이다. 비록 도학과 예학에 침착하고 있지만 시사를 등겨서는 안 된다고 믿었던 매산에게 이런 시대의 시련은 어떻게든 영향을 끼쳤을 것이다. 현실 속에서 매산은 대상을 차별하지 않는 보편 교육과 하층민까지 아우르는 적극적인 문학적 응대를 통한 계몽으로 이런 난국을 타개할 수 있기를 기대하였던 듯하다.

다만 매산의 문학 작품 속에서 이와 관련한 그의 예리한 논리와 실천 방식을 구체적 언사로 설파한 부분은 찾기가 어려웠는데, 시집에 섞여 있는 몇 수의 시 속에서 그 생각의 단서를 발견할 수 있다. 「苦寒」은 그 가운데 한 수이다.

아래의 시는 1845년에 창작된 「哀採薪」이라는 시이다.

原上荷鎌者	언덕에서 낫을 들던 그 사람
採薪終夕還	나무해서 밤늦게 내려와
擔肩向城市	메고서 저자로 향해 가는데
妻子自呼寒	妻子는 추워서 울부짖겠지

1845년이면 매산이 「苦寒」을 지은 뒤로 다시 22년의 세월이 흐른 70세 때이다. 긴 세월의 간극이 존재하지만 여전히 고단함에 지친 백성들의 모습이 보인다. 나무하는 나무꾼이 정작 자신의 집에는 군불을 지피지 못해 妻子를 추위에 떨게 만들어야 하는 가슴 아픈 현실을 담담하게 노래하였다. 시 속에서 주인공 나무꾼은 자신의 처지를 이야기로 풀어 내지도 않고 구체화된 사건으로 보여주지도 않지만, 위의 상황은 충분히 누구라도 공감할 수 있는 현실의 문제에서 비롯된 것이다.

1840년에 원나라 張養浩(1270-1329)의 「哀流民操」를 본떠 12절로 창작

한 「續流民操」도 매산의 현실 인식을 잘 보여준다. 한 부분만 소개한다.

哀哉流民	가련하다 유민들이여
顏貌不忍觀	얼굴을 눈뜨고 볼 수 없고
號咷不忍聞	울음을 차마 들을 수 없네
世無汲長孺	세상에 汲黯이 없는데
誰復發倉困	누가 다시 나라의 창고를 열까

매산은 시의 서문에서, 張養浩가 지은 「流民操」의 글 뜻이 애절하여 정말 오늘날의 광경을 말한 것 같아서 그 체를 본받아 이 시를 짓는다고 하였다. 고단한 백성의 삶을 목도하고 이를 기록하기 위해 노래의 형식을 빌렸음을 말한 것이다.

오늘날의 광경이란 무엇인가? 곧 차마 눈뜨고 볼 수 없고 차마 귀로 들을 수 없는 流民들의 가련한 모습과 처량한 울음소리이다. 매산은 1840년 4월에 沈能容에게 보낸 편지에서, 심각한 기근으로 팔도의 백성들이 도성으로 몰려들어 먹여주기를 기대하지만 한 사람도 구제되지 못하고 길과 들에서 굶어죽고 있다고 하였다.⁶⁷⁾ 더욱이 이를 해결할 의지를 가진 위정자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 절망하였다. 이런 상황 속에서 流民들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거의 없어 보인다. 매산은 부족하나마 시를 통해 이들의 아픔을 대변하는 역할을 담당한 것이다.

매산은 1843년에 지은 「原麥」에서는 추수할 때가 가까워진 보리밭에서 보습을 잡고 일하는 농부가 정작 그 보리로 양식을 삼을 수 없는 현실의 모순을 노래하였고, 1845년에 지은 「哀驅雀」에서도 논에서 참새를 쫓는 농부의 굶주림을 노래하면서 농부의 배에서 우레 소리 같은 배끓는 소리가 들린다고 하여 여러 시에서 당대의 모순과 백성의 아픔을 노래하였다.

67) 洪直弼, 『梅山集』 卷14, 「與沈稚彦[庚子四晦]」.

IV. 맺음말

지금까지 매산의 삶의 행적과 그의 문학에 대해 살펴보았다. 매산은 전적으로 문학에 전념했던 문인은 아니지만 문학적 의미를 갖는 많은 분량의 작품을 남겨두었다. 그는 학자로서 학문 탐구에 매진하고 후진 양성에 심혈을 다하면서도 문학의 사회적 역할과 가치를 간과하지 않았던 것이다. 특히 매산은 유도가 미약해지고 풍속이 쇠퇴하는 현실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었는데, 스스로 이를 바로잡기를 바랐다.

매산은 몇 가지 방향에서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다. 우선은 학술적 대응으로서 자신이 혼란한 세태에 뒤섞여 출사하는 것을 거부하고 물러나 위기의 학문에 종사하기를 원하였다. 이는 자연스럽게 가정의 학문 배경과 맞물려 노론 낙론의 계승자인 근재 박윤원의 문하에서 수학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후 노론 낙론 학맥의 계승자가 되어 산림처사로서 미약해져가는 유도의 진작을 꾀하는 중추의 역할을 맡게 되었는데, 심성론과 예학 탐구에 심혈을 기울이고 강학을 통해 많은 후진을 양성하는 방식으로 유도의 부흥을 꿈꾸었다.

매산은 문학을 통해서도 현실을 개선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비지와 전장을 통해 민간에 묻혀 있던 윤리와 절의에 관한 미담들을 소개하여 풍속을 바로잡기를 기대하였던 것이다. 아울러 시를 통해 가난과 추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고통 받는 백성들을 대변하고 위정자를 경계하고자 하였다.

매산은 문학 작품들은 간행본에 남아 있는 것 말고도 간행 과정에서 수습되어 묶인 200여 권에 달하는 초고 형태의 수합본이 남아서 전해지고 있다. 여기에는 간행본에 실리지 않은 상당히 많은 편수의 시 작품과 서간, 전장, 비지 등의 작품들이 실려 있다. 특히 개별 인물을 주인공으로 작성한 전장과 비지의 작품의 경우 상당한 편수가 남아 있고 이것이 매산의 현실 참여적 의식 속에서 작성되었다는 부분에서, 19세기 혼란기

를 겪던 산림처사 지식인들의 사회 개혁의 방식의 일단을 발견하게 된다.

이것이 역사 발전의 안목에서 볼 때 현실적 실효성을 갖는 것이었는지에 대해서는 또 다른 판단이 필요하겠지만, 문학이라는 도구로 사회 변화를 도모하고자 한 매산의 시도는 19세기 문학사의 한 경향을 보여주는 흥미로운 사례로 평가될 수 있을 듯하다.

<參考 文獻>

- 金平默, 『重菴集』, 『韓國文集叢刊』 319-320, 한국고전번역원.
蘇 洵, 『嘉祐集』.
宋時烈, 『宋子大全』, 『韓國文集叢刊』 112-113, 한국고전번역원.
吳熙常, 『老州集』, 『韓國文集叢刊』 280, 한국고전번역원.
李夏坤, 『頭陀草』, 『韓國文集叢刊』 191, 한국고전번역원.
任憲晦, 『鼓山集』, 『韓國文集叢刊』 314, 한국고전번역원.
趙秉憲, 『肅齋集』, 『韓國文集叢刊』 311, 한국고전번역원.
洪直弼, 『梅山集』, 『韓國文集叢刊』 295-296, 한국고전번역원.
洪直弼, 『梅山集校訂本』, 국립중앙도서관(한46-가1088).
承政院, 『承政院日記』. 實錄廳, 『哲宗實錄』.
- 노대환, 「세도정치기 산림의 현실인식과 대응론」, 『한국문화』 42호, 서울대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2008.
이대형, 「洪直弼의 寧越 유람과 節義의 형상화」, 『한국문화연구』 8호, 이화여대 한국문화연구원, 2005.
이은주, 「筆寫本 『梅山集』의 傳記 資料的 價値에 대한 研究」, 성균관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5.
정길연, 「梅山 洪直弼의 禮說研究」, 경성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8.
정순희, 「조선후기 도학자 시에 나타난 일상성의 몇 국면」,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24호, 한국문학이론과 비평학회, 2004.
최영성, 「敬石 任憲瓚의 학문과 사상」, 『한국민족문화』 22호, 부산대 한국민족문화연구소, 2003.

Abstract

*Study on Maesan Hong Jik-pil's reverence of Confucian beliefs and creation
of poetry and prose / Shin Young Ju**

I have traced the past and literature of Maesan. He was not a devoted literary writer but left a lot of literary works with strong belief in the social value of literature. In particular, he raised his critical voice on the dire reality of dwindling Confucian ethic and corrupt public morals and sought to address these issues in several directions. First, he placed his priority on learning instead of going after worldly success in confusing world. In addition, he endeavoured to restore public morals by introducing impressive folktales through epitaphs, biographies and life stories, to represent people in agony with poverty and cold weather and to stand against politicians. Maesan's attempts to change the world through literature can be evaluated an interesting case that reflects a certain aspect of the history of literature in 19th century.

【Key words】 Maesan Hong_Jikpil, Maesanjip, Sanlim, Wejung-chuksa, Warning to the world literature

투고일 : 4월 22일, 심사일 : 5월 19일, 게재확정일 : 6월 8일

* Associate Professor of Sungshin Women's Univ. / syj@sungshin.ac.kr